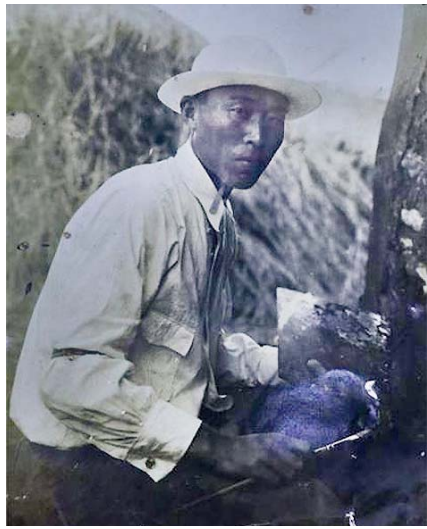




# ‘제주 화단의 선구자’ 재조명 미술사 정립 첫발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 ‘작고작가-김인지’ 마련 구술채록 생애 등 정리 제주미술협회 초대 회장 선전 입선 ‘에’ 등 13점 작품 추가 발굴 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심석의 모습.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 중 작업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공.

그는 서귀포 남성마을 절벽을 그린 ‘에(崖)’로 1935년 제14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입선한다. 1936년 15회 선전에서는 ‘서귀항’, 1938년 제17회 선전에선 ‘해녀’가 각각 입선에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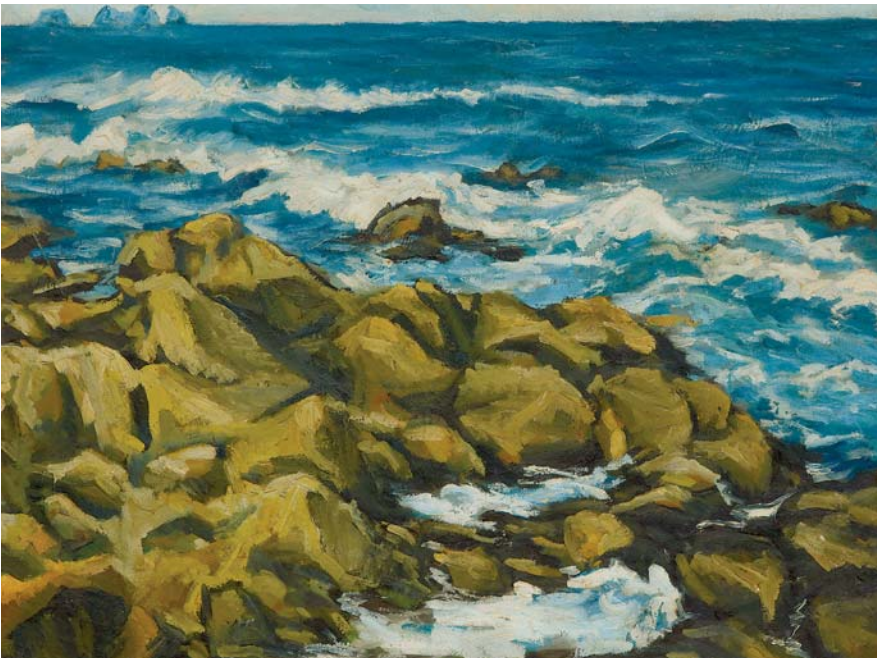
선전을 통해 이른바 중앙 화단에 제주 미술을 처음 소개하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로 불린다. 지금의 서귀포시 예래동 출신인 심석(心石) 김인지(1907~1967) 선생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새해 첫 기획전으로 김인지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살렸다. 지역미술사 정립 사업으로 이달 9일부터 5월 2일까지 기획전시실2에서 펼쳐지는 ‘제주 작고작가-김인지’ 전이다. 그동안 세종미술관 ‘도내 작가 유작전’(1991), 부산시립미술관 ‘격동의 예술혼’(1999), 한국미술협회제주지회의 ‘바람의 노래, 다시 피는 화혼’(2008), 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전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2009) 등

을 통해 심석의 작품 일부가 공개된 일은 있으나 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립미술관은 이 전시를 위해 구술채록, 1950년대 신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김인지의 생애’를 정리했다. 미술관 측은 ‘제주 화단의 선구자’로 심석을 평가하며 그에 대한 재조명은 ‘제주미술사 정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고동하 학예연구사)이라고 했다.

제주공립농업학교(제주농고)와 전남공립사범학교(현 광주고대)를 졸업한 심석은 1934년 ‘선진적인 미술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 동경고등사범학교 부속 동광회화강습회의 도화강습과를 수료한 그는 그곳에서 소묘, 유채화, 나체 등을 연구했고 이는 선전에서 잇따라 입



김인지의 ‘바다풍경’(캔버스에 유채, 1950년대).

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주농고 미술 교사, 제주 문교국 학무과장, 복제주군 교육감, KBS제주방송총국장, 제주시장 등 교육, 행정, 언론계를 두루 거친 심석은 1955년 창립한 제주미술협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제주 현대 화단의 기반을 다졌다. 1960년 제주미술협회가 재결속되던 때에도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이 과정에서 심석은 제주미술협회전, 전도미술학생전 등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이끌었다. 제주미술 발전에 대한 심석의 뜻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에서 제주대 미술학과에 성금을 기탁해 ‘재대미전’ 우수 출판자에게 ‘심석장학금’을 수여해 온 것으

로 나타났다.

이번 도립미술관 전시장에는 선전 입선작인 ‘에’, 공공수장고를 통해 복원한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 등 원화 13점이 나온다. 심석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사진, 고인을 추억하는 제작자와 가족의 증언, ‘화가 김인지’를 바라보는 평론가의 인터뷰 영상도 준비됐다.

반면 이 전시는 향후 제주 미술사 연구의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1948년 개인전 당시 출품했던 30점 중에서 현재 소재지가 확인된 것은 13점(도립미술관 소장 6점)에 불과하다. 선전 입선작인 ‘서귀항’, ‘해녀’를 포함 나머지는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의 710-4272. 전선희기자

# 코로나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시동

문체부 공모 공·사립 선정 도박물관 ICT 융합형 전시 미술관도 온라인 자료 구축

내 7개 국립미술관 중 6곳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을 갖추게 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비대면 VR 전시 관람 콘텐츠와 전시 디오라마에 AR 기술을 접목한 역동적인 전시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대표박물관으로 비대면과 대면 양방향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국립 박물관·미술관들이 코로나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나란히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공모했다. 지난 5일 발표된 심의 결과 전국 국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 18개관이 지원 대상에 들었다. 제주에서는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분야에서 6개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4개 사업,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분야에서 1개 사립 박물관의 사업이 각각 뽑혔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ICT 융합형 전시관람 시스템, 제주도립미술관의 온라인 전시실(디지털 트윈 뮤지엄), 김창열미술관 디지털 트윈 전시실, 서귀포시 3개 국립미술관 연계 디지털 전시플랫폼 구축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제주현대미술관까지 합치면 도

립미술관은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장 작품 중 대표작을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기획전도 선보인다.

김창열미술관도 코로나로 수요가 확대된 ‘온택트 온라인 미술관’을 조성한다. 실제 전시실을 온라인으로 옮긴 실감형 전시로 차별화된 비대면 전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귀포시는 이충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전시관 등 3개 국립미술관의 작품 150여 점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웹과 스마트폰에서 쉽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다. 특히 3개 미술관의 대표작가인 이충섭, 변시지, 현중화의 작품을 영상, 오디오 도슨트, 수어 서비스를 더해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종합심사에선 저지문화예술마을에 들어선 예나리 제주공예박물관 사업이 선정됐다. 제주공예박물관은 ‘예나리 숨은 공예품 찾기’를 추진한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 제남도서관 비대면 프로그램

제남도서관은 비대면 ‘책이랑 놀자’와 ‘청소년 코딩놀이 교실’ 수강생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책이랑 놀자!’는 오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김진희 강사(동화구연·독서지도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유아, 초등학생 1~3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회차별 15명이다. ‘2021 청소년 코딩놀이 교실’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매일 3시간씩 김영주(코딩강사) 강사의 지도로 운영된다. 미래직업을 가상현실 코딩교육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예비 중학생과 중학교 1·2학년이 대상이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선착순 15명)하면 된다.

### 실버케어복지학과 모집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학장 남진열) 실버케어복지학과 ‘미실독서동아리’(회장 박봉자)가 최근 동아리 모집 ‘미실인 2020’을 발간했다.

이번 모집은 2017년 첫 신입생을 선발한 실버케어복지학과가 2월 23일 제65회 전기학위수여식에서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학과 소속 전 학생들이 이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발간했다. 실버케어복지학과는 ‘선(先)취업 후(後)학업’의 취지와 평생학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융합대학에 속했다. 미래융합대학엔 실버케어복지학과,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등 4개 학과가 설치돼 대부분 만학도가 재학 중이다.

## 송당리마을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 비대면 운영 소원 신청 접수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으로 마련되는 ‘신과세계’를 앞

두고 제주주민 대상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코로나 극복바람-천개의 바람꽃’이란 이름을 단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추진되

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마을제 신과세계를 찾을 수 없는 도민들의 소원을 신청받는 행사다. 지난 5일부터 제주문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원을 받고 있는데, 선착순 1000명 마감 시 모집이 종료된다. 접수된 소원은 동백꽃에 새겨져 송당분향당 입구 동백나무 길에 설치될 예정으

로 신과세계(음력 1월 13일) 다음날인 이달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사업은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주최하고 송당리마을제와 제주문예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문의 800-914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재청 ‘자연유산 대관’ 오디오북·e북 서비스도

즐거도록 ‘자연유산 대관’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연유산 대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와 현황, 사진 등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2009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된 동물분야 ‘경주계 동경이’를 비롯해 식물분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지질분야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천연기념물 40건과 ‘설악산 대승폭포’ 등 명승 46건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 수록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자연유산 현장 영상과 소리가 재생되는 등 도심에서도 생생한 자연유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도 이뤄진다. 자연유산 정보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교보문고, 예스(YES)24와 협약을 맺고 자연유산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다.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해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배포한다. 전선희기자

# 제2공항 찬반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찬성한다 답해주세요

**제2공항 찬성!!**  
두개의 하늘길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향방문 하세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입니다.  
#오름은 보존, 조류대책 마련합니다.  
#제2공항은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제주의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 제주의 동서남북 **균형있게** 성장합니다.

- 대한노인회표선면분회 | 표 선 노 인 대 학 |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 새마을지도자표선면협의회 | 표 선 면 새 마을 부 녀 회
- 표 선 면 체 육 회 | 표선면연합청년회 | 표선면축구연합회 | 표 선 라 이 온 스 클 럽 | 표 선 로 타 리 클 럽
- 표 선 청 년 회 의 소 | 농촌지도자표선면회 | 농업경영인표선면회 | 표 선 면 자 울 방 범 대 | 표선면청소년지도협의회
- 성읍민속마을보존회 | 표선면게이트볼연합회 | 해 병 대 표 선 전 우 회 | 재)제주시표선면향우회 | 표 선 6 0 대 축 구 회